

泰 齋 비 전

새로운 리더를 갈망하는 시대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잠재된 재난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회로도 바꿔낼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갖춘 리더의 등장이 절실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일제강점과 남북분단, 한국전쟁 등 온 국민이 고통받고 온 국토가 유린되었던 지나간 역사는 준비된 리더의 부재가 초래한 거대한 수난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는 더 엄혹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는 미/일을 합한 것보다 더 크게 중국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미/중이 사활적 경쟁을 지속하면 여전히 남/북으로 갈려 중/미가 대치하는 이 땅은 과거보다 더 큰 파국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70여년 전 양 대국의 대리전이 펼쳐졌던 유일한 장소였으며, 앞으로도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한반도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강국과 차강국이 협력하여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해내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임무를 반드시 이루어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가간 패권경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미증유의 위기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순간 오판으로 인류를 절멸시킬 수도 있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가 무수히 쌓여 있습니다. 산업문명이 초래한 인구 폭발과 대도시 집중도 기후재난과 전염병, 생태계 파괴의 업보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바이오 기술의 발전 또한 인간을 어디로 데리고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어느 누구도 이 위기를 발본적으로 해결해 보겠노라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부터가 자국만의 이익을 위할 뿐,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세계적 과제는 악화일로 를 거듭하는데, 그 해결 방안을 확립하고 실행할 세계적 제도와 질서는 부재한 것입니다. 그 표류하는 세계의 한복판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임박한 이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탁월한 리더를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들의 터전

지금의 세계는 강대국의 힘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과 제도에 의하여 국가질서를 유지하듯이 이제는 세계도 합의에 기반하여 세계질서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강대국도 제재를 받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강대국들이 합의하고 이후 모든 국가들이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특정 강대국을 위한 세계”가 아닌 “세계를 위한 세계”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미/중이 먼저 타협하고 세계가 협력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중/미 양 대국이 합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결집하고 편집하여 최선의 계획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미약한 세력이라도 뛰어난 리더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개척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G1과 G2, 미국과 중국이 그 증거입니다. 240여 년 전 13개 주로 출발한 미국은 막 해방된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에 견주어도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오로지 창조적 소수의 응집된 지혜로 대중에 봉헌하는 미래형 권력을 만들어 냈으므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1921년 56명으로 시작한 중국공산당은 또 어떻습니까. 500만 군대를 확보한 국민당에 견주면 일개 도당에 그쳤습니다. 그랬던 중국공산당 역시도 국민 다수였던 농노를 해방시키는 혁명으로 국민당을 대만으로 패퇴시켰으며, 시장을 포용하는 혁신을 통하여 창당 100년 만에 G2 국가가 되었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세계 넘버원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국과 미국이 이제는 지속가능한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UN을 비롯하여 집행력이 부족한 기존의 국제기구의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세계정부로 가는 대헌장에 합의함으로써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중의 대타협은 곧 동양과 서양을 넘어서는 세계 문명의 대융합을 의미할 것입니다. 산업문명 시대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독재 너머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중/미가 쟁투하는 이 한반도가 동서고금을 회통하는, 동방과 서방을 잇고 새 것과 옛 것을 엮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선도하는 신문명의 터전으로 화할 수 있는 까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사회부터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모방하고 끌려가던 나라에서 미래를 창조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공헌하는 미래기술과 미래산업부터 확보해가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선용하는 21세기판 사회계약도 입안해 가야 합니다. 만인의 기본권을 보장함은 물론이요, 만물의 자연권도 보호해주는 새로운 약속도 이루어가야 합니다. 도시경영과 국가경영부터 세계경영에 이르기까지 선출직 인재의 안목과 역량도 대폭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미/중을 설득해내고 세계인이 믿고 따를 만큼의 도덕적 자질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류의 미래가 간절히 희구하고 있는 이 과업에 자신의 일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인재들입니다. 태재는 저 21세기가 갈망하는 리더들이 모이는 요람이 되겠습니다. 공멸의 위기를 공생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에 도전하는 개척자들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창조하는 동북아의 협력을 통하여 상생하는 세계공동체를 선도하는 초일류사회 한반도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세계와 함께 인류의 미래를 기획하는 공론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품어낼 수 있는 인재들의 참여를 열렬히 갈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리더들의 터전, 태재(泰齋)의 소망이자 소명입니다. ■

재단 연구 주제

| 세계경영 | 부문

01

갈등에서 협력으로의 대전환

02

지속불가능 극복하는 세계

03

디지털이 가져올 사회변혁

04

다음단계 미래가치

| 세계공동체 | 부문

11

동남아협력체

12

동북아협력체

13

세계공동체로의
진화

| 국가경영 | 부문

05

한반도 미래산업

06

핵심 7대 분야
초일류 역량 확보

07

선출직 인재 양성

| 도시경영 | 부문

08

미래거버네티

09

미래도시

10

미래주거

| 세계경영 | 부문

01 [갈등에서 협력으로의 대전환]

세계 변화 핵심인 ‘급부상 중국’과 ‘견제하는 미국’의 갈등을 협력공존으로 대전환 하는데 공헌하는 한반도

4줄 요약

- 지속불가능에 놓인 현재 사회체제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구
- 지금 방안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며 그 이유는 국가 중심 경쟁체제와 초강대국의 역할 미시행
- 과거 미·중 대리전이 일어났던 장소이자 미래 핵전쟁의 위험 역시 가장 높은 곳인 한반도
- 한반도 생존을 위해 미·중간 갈등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협력공존의 세계 질서로 대전환

세계 곳곳은 여전히 지구온난화·기후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와 핵·테러 위협과 통제력 잃은 기술의 문제, 빈곤·양극화라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인류는 공영은 고사하고 지속불가능의 위기 아래 당장의 생존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국가간 협력을 통한 전 지구적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들은 자국 이기적인 태도 아래 협력은 커녕 패권이나 이권 경쟁만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 역시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나날이 심화되는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놓여있다.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및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과거에도 미·중 대리전이 일어나는 장소였다. 또한 여전히 그리고 미래에도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지속불가능의 극복과, 한반도의 생존을 위해서는 미·중간 갈등을 넘어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우선하는 세계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 기존의 양극/다극 체제를 넘어 협력공존하는 세계 질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한반도는 생존을 위해서 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며 한반도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미·중 협력을 이끄는 반전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

| 세계경영 | 부문

02 [지속불가능 극복하는 세계]

전 지구적 통제와 기술진보를 통해 지속불가능을 극복하는데 공헌하는 한반도

4줄 요약

- 산업화가 가져온 풍요로운 성장과 함께 수반되어온 질곡인 지속불가능성
- 세계기구와 국제협약은 존재하나, 강제력 부족하고 세계질서는 여전히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실정
-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가 질서를 갖추듯이 국제사회도 실행력 갖춘 해결책이 법과 제도로서 확립 필요
- 그 외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한 솔루션 모색으로 전 지구적 문제인 지속불가능성 극복

산업화는 다수의 대중들도 소수의 왕족, 귀족과 같이 자유를 만끽하고 차별 받지 않으며 풍요롭게 살게 해주었으나 같은 이유로 지구의 지속은 위협 받게 되었다. 기술과 사상에 기반한 혁신이 삶을 윤택하게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비롯된 인구 폭증, 생태계 파괴, 기후 위기, 양극화, 통제력 잃은 기술 발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핵 및 테러 위협 등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속불가능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UN은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 기후변화협약을 제안하고 교토의정서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강제력 미비로 미국,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불참하였고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질서를 갖추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안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즉 실효성 있는 통제력을 확보한 국제기구를 통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실천해야 하는 법과 제도를 장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한 기술적 해결 방안 모색도 계속되어야 한다. 기술 진보는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솔루션들을 계획하고 실현할 때 지속가능한 지구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 ■

| 세계경영 | 부문

03 [디지털이 가져올 사회변혁]

디지털을 선용하여 인류 사회 진화에 공헌하는 혁신을 주도하는 한반도

4줄 요약

- 인쇄술이 촉발시킨 산업화 사회로의 대전환
- 디지털, 즉 지식을 쌍방향으로 그리고 필요 양만큼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촉발시킬 변화
- 근무, 교육, 의료, 문화부터 주거, 도시, 거버넌스까지 우리 사회 변화 조망 필요
- 기술변화만 좇기 보다는 미래사회가 원하는 바를 선견하고 선점함으로써 미래변화 주도

15세기 등장한 인쇄술은 중세 농업사회를 근대 산업사회로 대전환 시킨다. 인쇄술로 인한 성서의 보급은 성직자의 절대성을 무너뜨렸고, 지식의 전파는 왕족과 귀족 등 기존 기득권층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책을 통한 지식의 확산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종교개혁과 민주혁명, 나아가 산업혁명까지 일으킨 것이다.

인쇄술이 근대사회 도약의 열쇠였듯이, 미래사회 도약의 열쇠는 디지털이다. 인쇄술은 지식을 일방향으로만 전달할 수 있었기에 획일화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은 지식을 쌍방향, 필요한 양만큼 소통하게 하여 소위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지식 전달방식의 변화는 근무와 교육, 의료 등 시민 생활에 혁신을 가져다 주고 있다. 원격근무, 디지털 헬스케어, 급기야는 디지털을 활용한 캠퍼스 없는 대학인 미네르바대학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의 주거, 도시, 거버넌스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디지털이 바꿀 미래사회를 선견하고 선점한 사회는 미래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한반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

| 세계경영 | 부문

04 [다음 단계 시대가치]

미래사회로의 진화를 위해 인류가 추앙해야 할 새로운 시대가치를 설정하는데 공헌하는 한반도

4줄 요약

- 미래 디지털사회로 가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있어서 새로운 추앙할 사상이 필요
- 산업사회가 자유, 평등 가치를 추구하며 발전하였듯이 새로운 추구 가치를 통해 인류 삶 진화 필요
- 동양과 서양, 이성과 감성,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 등 여러 대립 가치들의 상보융합 통해 새로운 시대가치 발굴
- 동양·서양, 이성·감성, 자유주의·공산주의를 익히 경험한 한반도가 이러한 가치발굴 통해 미래사회에 공헌

우리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있다. 산업사회의 추구 가치였던 자유와 평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소중한 가치이지만, 지속불가능의 극복, 디지털이 가져올 사회변혁 등 작금의 모순 해결과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이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가치를 통해 우리의 삶도 성숙하고 건강하게 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발굴하여 추앙하는 것을 통해 인류의 삶은 진화해 왔다.

동양과 서양, 이성과 감성,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 등 현재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가치들이 상보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 가치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한반도는 유교 전통의 동양적 사회이면서 서양의 종교까지도 수용한 서양적 사회이다. 또한 감성이 강하여 소위 ‘한류’를 만들어가고 있는 감성·이성이 복합된 사회이다. 동시에 자유주의의 남한과 공산주의의 북한으로 나뉘어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 둘로 나뉘어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한반도가 대립가치의 상보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 가치를 발굴하여 이에 기반한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사회로의 진화에 공헌하자. ■

| 국가경영 | 부문 05 [한반도 미래산업]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하는 한반도 미래산업

4줄 요약

- 한반도 산업의 위기와 미래산업 발굴 필요성
- 미래 창조 · 세계 정상 필수 · 정체성 기반의 미래산업 제안
-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육성방안 및 배치계획 제안
-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한반도 경쟁력 확보

한반도는 한강의 기적으로 일컫어지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는 과거의 성장 동력을 잃어가며 선도국과 추격국의 압박 속에 위협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 지금의 위기를 뛰어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를 조망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미래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는 필수불가결한 것을 만들어내는 “미래창조 산업”, 다가오는 미래 디지털시대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정상 필수 산업”, 한반도의 특성을 기반으로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정체성 기반 산업”을 미래산업 주요 후보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

미래산업 선정이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해당 도시의 역할, 시+산+학 융합 창조플랫폼 조성, 필요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육성 및 배치 방안을 구상한다. 이미 과밀 개발되어 고비용/저효율인 수도권이 아닌, 저비용/고효율이 가능한 지방 소도시 중심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반드시 정치적 접근 아닌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래산업 육성 및 배치 전략을 통해 한반도 미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를 초일류사회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

| 국가경영 | 부문 07 [선출직 인재 양성]

도덕성 · 역량 갖춘 선출직 인재 양성을 통한 초일류사회 경영

4줄 요약

- 사회 주도 핵심인 선출직 인재에 대한 검증 부족한 현 상황
- 선출직 인재의 자격 검증을 위한 평가 기준 정립의 필요성: 도덕성과 역량
- 해당 지역 경쟁력과 삶의 질을 비용효율성 있게 향상시키는 선출직 인재 육성
- 선출직 인재 양성을 통한 초일류사회 도약 및 경영

현재 선출직 공직자들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 삶을 좌우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국가 방향성을 결정한다. 그러나 임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기에 영합하는 선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충분한 역량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도덕성과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 기준 정립을 통해 올바른 선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 기준을 통해 선출된 인재들은 해당 지역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비용효율성 있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하며 이에 대한 해당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임기 연장을 승인 받아야 한다.

위대한 인재는 나라의 명운을 바꾸기도 한다. 불과 240 여년 전 식민지에서 갓 독립한 미국과, 100 여년 전 소규모의 힘 없던 조직이었던 중국공산당이 각각 세계 최강국과 지금의 중국공산당으로 발전한 것은 이들을 이끈 뛰어난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출직 인재 육성은 한반도 초일류사회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 국가경영 | 부문 06 [핵심 7대 분야 초일류 역량 확보]

사회 핵심분야 우선적 역량 확보를 통한 한반도 초일류사회 선도

4줄 요약

- 다음 단계 사회로의 진화를 위해 한반도 사회 발전 전략 필요
- 他분야 선도하는 우선적 발전이 필요한 핵심 7대 분야: 싱크탱크, 대학, 기업, 미디어, 정부, 정당, 군대
- 핵심 7대 분야 최정상화를 위한 혁신과 도전의 로드맵 계획 필요
- 핵심 7대 분야 최정상화를 시작으로 하는 한반도의 초일류사회로의 도약

다음 단계 사회로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회 전분야의 폭 넓은 발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분야가 선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타 분야도 후속적으로 발전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발전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시간에 한반도 초일류사회로의 발전을 꾀하는 우리로서는 채택해야 할 전략이다.

우리 사회에 핵심 분야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사례를 통해 지혜를 모아보면, 싱크탱크, 대학, 기업, 미디어, 정부, 정당, 군대와 같은 7대 분야가 핵심일 것이다. 그 사회의 두뇌나 경쟁력 모체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핵심 7대 분야가 우선 발전 대상이다. 따라서 핵심 7대 분야를 혁신하고 세계 최정상화 하는 방법을 분야별로 모색해야 한다. 최전선 사례들을 조사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사안들을 분야별 혁신 로드맵에 반영시키며, 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사회 발전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핵심 7대 분야 우선적 최정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미래 초일류사회 한반도로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 ■

泰齋財團 재단법인 태재연구재단
THE TAEJAE RESEARCH FOUNDATION

| 도시경영 | 부문 08 [미래거버니티]

미래가 원하는 미래사회·미래도시·미래주거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미래거버니티

4줄 요약

- 미래사회로의 대전환은 사회혁신이며 이를 실행력 있게 추진하는 거버니티가 반드시 필요
- 미래사회 토대가 될 강소形 미래도시와 디지털라이프 미래주거의 탄생·확산 여건 조성하는 거버니티
- 미래사회로의 사회변혁을 설득하고 반대를 극복하는 추진력 갖춘 거버니티
- 미래사회로의 대전환을 가능케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버니티

지금과 다른 미래사회와 미래도시 그리고 미래주거를 창조하는 것은 사회혁명과 같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상하고 실행력 있게 추진할 새로운 거버넌스, '미래거버니티'가 필요하다.

미래거버니티는 현재의 일률적인 국가거버넌스를 넘어 미래사회가 원하고 미래도시, 미래주거에 적합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즉 미래도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산+학 융합 창조플랫폼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리빙인프라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라이프가 구현되는 미래주거가 되도록 필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층을 설득하고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미래도시, 미래주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사회질서 핵심을 만들어야 한다.

1969년, 미국은 인류 최초 달 왕복 선언 10년도 되지 않아 목표를 달성했다. 담대한 비전과 NASA의 명확한 목표설정, 추진력이 이를 가능케 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 미래거버니티를 통해, 미래사회와 미래도시, 미래주거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

| 도시경영 | 부문 09 [미래도시]

현재의 지속불가능 문제 극복하고 미래문명 주도하는 강소形 미래도시

4줄 요약

-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인 지속불가능을 가속화하는 현재의 대도시 중심 체제
-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지속불가능 극복 가능한 강소形 미래도시의 모색
- 대도시를 뛰어넘는 경쟁력과 삶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갖추는 강소形 미래도시
- 시민이 공동체화 되는 강소形 미래도시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미래사회·미래문명 주도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반하여 풍요로운 대중사회를 이룬 현 산업사회는 같은 이유로 지속불가능의 모순을 갖게 되었다. 산업사회에 최적화된 대도시는 이러한 지속불가능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도시 성장을 가능하게 한 높은 집적도는 이동시간과 에너지 사용, 비용의 폭등을 야기하며 지속불가능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은 새로운 도시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재택근무, 원격의료, 디지털교육은 도시의 필수기능을 디지털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해준다. 문화체험, 행정, 쇼핑, बैं킹 등 거의 모든 도시의 기능이 이렇듯 디지털 기반으로 서비스화 되어 디지털리빙인프라가 된다. 강소형 미래도시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강소形 미래도시는 인구 만 명 수준의 작은 도시이지만, 기존 메트로폴리스 기능의 디지털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보장 외에도, 도시마다 특성에 맞는 산업을 선택하고 이와 결부하여 시+산+학 융합의 창조플랫폼 장착하는 것을 통해 기존 대도시 못지 않은 경쟁력을 확보된다.

강소形 미래도시의 시민들 합의에 기반하여 선택가능한, 공동체 도시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간에 형성된 네트워크는 기존 대도시를 넘어서는 삶의 질과 경쟁력으로 미래사회 변화와 미래문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

| 도시경영 | 부문 10 [미래주거]

건강 보장, 정체성 기반 교육과 직업, 디지털라이프 통해 행복 생활 지원하는 미래주거

4줄 요약

- 역할 약화와 기능 저하를 방지하여 지속 불가능 가정 양산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재의 주거
- 디지털리빙인프라 구현으로 도시기능 대부분을 대체하는 미래사회에서의 미래주거 중요성 증가
- 건강, 정체성, 즐거운 삶, 재충전, 재택근무, 원격교육, 육아·가사노동 해방, 주거 유형별 솔루션을 지원하는 미래주거
- 이러한 요소들을 망라하여 행복생활을 보장하는 미래주거 모색

주거는 시대에 따른 사회변화와 맞물려 발전해 왔다. 농업사회, 산업사회를 거치며 가족구성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주거의 의미는 피난처에서 숙식과 휴식의 장소로 변모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가정의 역할은 약화되어 많은 가정이 와해 위기에 몰려 있고 주거 기능은 필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문제점만 축적되고 있다.

디지털 변화는 거대한 사회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라 미래주거에 변혁을 일으킬 것이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및 원격의료의 활성화, 디지털 문화체험 등 디지털리빙인프라는 현재 도시 기능 대부분을 주거가 대체해 가도록 할 것이다. 주거의 기능은 그만큼 확대되고 중요해 진다.

따라서 지금의 약화된 가정 역할과 방치된 주거 기능은 미래스마트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각종 센서와 디지털 연결 체제는 앞으로 집에서 건강 유지, 정체성 파악 및 이에 기반한 교육, 구성원간 소통 촉진 및 이로 인한 즐거운 생활, 효율적 재택근무, 효과적 휴식, 가사노동 최소화, 주거유형별 방안을 제공받도록 해준다.

가족 구성원들은 미래스마트홈에서 미래사회 삶의 질 대부분을 제공받으며 이는 미래도시, 미래사회 실현의 필수적 요건이다. 미래스마트홈은 시민의 행복생활을 보장하는 모체가 되어야 한다. ■



| 세계공동체로의 진화 | 부문 11 [동남아협력체]

미래형 국가 협력 통해 '소강사회 동남아'로 이끄는 협력체 모색

4줄 요약

- 자국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
- '소강사회 동남아'를 위한 협력 모색 과정에서의 갈등요소 타파
- 동남아 협력공존 모델 구축 및 실현 방안 모색
- 동남아협력체를 시작으로 하는 세계협력공존 체제로의 대전환

세계는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간 협력은 공생, 공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세계는 여전히 국가 중심 경쟁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와 달리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일부 강대국 중심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세계화된 사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내 국가간 협력체를 지향하는 동남아는 상이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으로 국가마다 다른 정치 체계와 역사적 갈등을 가져 왔다. 세계공동체의 초석이 될 동남아협력체는 이러한 갈등 요소는 타파하고 공동 목표를 내세우는 것을 통해 국가간 협력을 실현해 낼 수 있다. '소강사회 동남아'라는 목표를 통해 협력공존을 모색할 수 있다.

동남아협력체는 경제적, 지리적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력을 발굴해서 이끌어야 한다. 동남아 협력공존을 실현시킬 방안을 찾아낸다면, 동남아는 현재 경제적 이권에 얽매인 단기적 관점을 극복하고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상이한 국가 간의 동남아협력체를 이끄는 경험은 이후 '세계공동체로의 진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동남아의 협력공존 및 지역 평화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이익 중심으로부터 세계 협력공존 체제로의 대전환에 초석이 될 것이다. ■

| 세계공동체로의 진화 | 부문 13 [세계공동체로 진화]

세계공동체로의 진화를 통한 전 지구적 협력과 공존

4줄 요약

- 現 국제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필요성
- 지속불가능 극복하고 미래사회 대비하는 세계공동체 로드맵 구상
- '동남아협력체' · '동북아협력체' 기반한 세계공동체로의 진화
- '세계를 위한 세계' 구현에 공헌하는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감축,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파괴, 첨단 기술의 오남용 방지 등 지속불가능 극복을 위해서는 특정 국가 중심의 대책이 아닌 전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국제기구는 강대국들의 권한 남용, 각국의 이권 다툼 등으로 실효성 있는 합의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 국제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공동체 차원의 질서 구현이 절실하다.

세계공동체는 현재 인류가 당면한 지속불가능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해야 한다. 또한, 도래할 미래사회를 조망하고 대비하는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미래비전과 문제해결 역량을 갖추는 세계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하나씩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공동체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뒤따를 것이다. '동남아협력체'와 '동북아협력체'를 통해 쌓은 경험과 협력 구조는 세계공동체 탄생의 밑거름 역할을 하며 공헌하게 될 것이다.

세계공동체로의 진화과정은 패권의 배타적 쟁취나 자국 이익만을 탐하는 작금의 국가 중심 경쟁 체제를 넘어서서 명실공히 '세계 모든 시민들을 위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한반도는 이에 공헌함을 통해 미래사회 주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

| 세계공동체로의 진화 | 부문 12 [동북아협력체]

갈등에서 협력으로 대전환 하게 하는 동북아협력체

4줄 요약

- 초강대국간 패권다툼으로 갈등이 심화된 동북아의 현 상황
- 현재의 위기를 반전시키는 동북아협력체 필요성
- 화해와 협력을 가능케하는 동북아 협력공존프로젝트 구상 및 실현
- 협력공존프로젝트 공헌을 통한 한반도 위상 강화와 영향력 확대

구한말 미·중·일·러 4강이 격돌했던 동북아는 지금도 여전히 네 강대국이 패권쟁취와 자국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실정이다.

동북아시아의 위기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 반전이 없다면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은 명약관화하다. 위기의 극복과 반전의 기회는 같이 온다. 동북아시아를 화해와 협력이 거듭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 한반도의 위기를 반전시켜 나가야 한다.

동북아협력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석탄철강공동체에 기반하여 유럽연합을 탄생시켰듯이, 에너지 및 자원 협력에 기반하는 경제협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협력공존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도시화를 위해 미래형 강소도시를 만드는데 한국이 계획과 개발을, 미국과 일본이 기술과 자본을, 러시아가 자원을 각각 협력하고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안 등은 협력공존 모델로 검토할 만 하다.

만약 동북아 협력공존프로젝트를 한반도가 주도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내 한반도의 입지는 더욱 강화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평화통일 달성 등 한반도가 스스로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가게 하는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

